



걸그룹 아이브가 지난달 18일 서울 송파구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28회 드림콘서트'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대세 아이브 ‘국내는 좁다’

내달 11시 첫 공연…방송 이벤트 테마송도 맡아

‘대세’로 떠오른 걸그룹 아이브가 국내를 넘어 일본 점령에 나선다.

아이브는 데뷔 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며 ‘4세대 케이팝 걸그룹’ 대표 주자 대열에 합류했다.

이런 인기를 입증하듯 8월 일본에서 열리는 ‘더 스타 넥스테이지’(THE STAR NEXTAGE) 공연을 통해 현지 팬들과 처음 만난다. 19일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요코하마, 4일 고베, 9일 후쿠오카에서 각각 2회 씩 무대에 오른다. 1회당 1만 석 규모의 유료 공연이다.

이들은 현지에서는 정식으로 데뷔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데뷔 싱글 ‘일레븐’(ELEVEN)에 이어 4월 두 번째 싱글 ‘러브 다이브’(LOVE DIVE)까지 연이어 히트해 첫 일본 공연까지 성사됐다.

이들의 공연 소식이 일본 소속사 트위터를 통해 알려지자 현지 팬들은 “드디어 오느구나”, “그날만 기다리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있다.

아이브는 일본 후지TV에서 11일부터 진행하는 가상 공간 이벤트 ‘버추얼 모험 아일랜드2022’의 테마송 주인공 공으로도 나선다. 테마송은 아이브의 데뷔곡인 ‘일레븐’을 일본어로 번안했다. 이곡은 데뷔 7일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국내 방송사의 음악순위 프로그램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들은 이달 말 일본으로 건너가 관련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무대에도 오를 예정이다. 이후 귀국해 8월 컴백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사실상 첫 복귀작…투병 전보다 건강 좋아져”

우주 죄수 추격자 ‘가드’ 역할 맡아 5년전 비인두암에 걸려 작품 중단 믿고 기다려준 최동훈 감독에 감사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검진도 꼭 받으셔야 하고요.”

배우 김우빈(33)은 최근 모든 공식석상에서 참석자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유를 묻자 “내가 말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냐”며 웃었다. 비인두암 투병으로 6년의 휴식기를 가진 뒤 복귀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며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다행히 그도 완쾌했고, 이제 힘겨웠던 지난 시간을 “하늘이 내게 준 휴가”라고 돌이키고 있다.

‘휴가’를 끝내고 그가 첫 번째로 택한 영화가 SF판타지 ‘외계+인’(감독 최동훈·제작 케이퍼필름)이다. 지난해 종영한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로 먼저 시청자를 만났지만, 촬영 일정은 ‘외계+인’보다 늦어 사실상 영화가 첫 번째 연기 복귀작이다.

20일 개봉에 앞서 18일 서울 삼청동에서 만난 김우빈은 “모든 제작진이 누구보다 제 현장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해주던 첫 촬영일”을 회상했다. 그는 2022년 현재와 603년 전 고려시대를 오가며 우주 행성의 죄수를 인간의 몸에 가둔 외계의 존재에 맞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이야기에서 우주 죄수를 쫓는 ‘가드’를 연기했다.

그는 “오랜만의 현장이라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첫 촬영이 CG로 로봇 몸을 표현해야 하는 장면이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쫄쫄이’ 타이즈를 입고 있었다. 스스로 너무 작아지더라”며 회화하게 웃었다.



영화 ‘외계+인’의 주역인 배우 김우빈이 비인두암을 극복하고 6년 만에 관객을 만난다.

사진제공 | 에이엠엔터테인먼트

●“스크린 복귀작, 최동훈 감독이어야 했다”

김우빈에게 스크린 복귀작은 “무조건 최동훈 감독의 영화”여야 했다.

그는 2017년 최 감독의 ‘도청’이라는 작품을 주연키로 했다. 하지만 크랭크인 준비에 한창이던 그해 5월 비인두암 판정을 받았다. 이에 감독은 “김우빈이 완치할 때까지 (도청을)제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외계+인’은 그런 최 감독의 믿음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감사하게도 많은 작품의 제안이 들어왔지만 무조건 최 감독의 작품을 1순위로 택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최 감독님의 영화라면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달려갈 준비가 돼 있었죠. 어느 날 감독님이 집에 놀러 와 몸 컨디션을 묻더니 ‘외계+인’을 제안했죠. 시나리오를 안 읽어도 무조건 할 마음이었는데 이야기마저 흥미로웠어요.”

그의 건강을 위해 “액션 준비는 안 해

SBS 유튜브도 해킹…방송사들 ‘긴장’

채널 7개 12시간 이상 차질 빚어
지난달엔 YTN도 뚫려 한때 먹통

SBS 뉴스 등 유튜브 공식 채널이 해킹당해 12시간 넘게 제대로 접속이 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19일 SBS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30분경부터 총 7개의 관련 계정

이 먹통이 됐다. SBS 뉴스, 예능프로그램 ‘세상에 이런일이’ 영상을 모은 ‘우와한 비디오’, ‘TV 동물농장’ 영상을 담은 ‘애니멀봐’, 드라마채널 ‘SBS 캐치’, 영어채널 ‘SBS 월드’, 소형동물 전문 채널 ‘크리터 클럽’, ‘아임숙’ 등이다. 유튜브에서 채널이 아예 검색되지 않거나, 채널에 접속하면 재생 목록에 영상이 모두 내려간 상태다.

이날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복구되고 있다. 오후 현재까지 ‘우와한 비디오’, ‘SBS 캐치’가 계정을 되찾아 영상을 정상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SBS 뉴스 채널과 ‘애니멀봐’ 등에서 잠시간 계정과 관련 없는 가상화폐 주제의 영상이 실시간 중계됐으며 해킹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SBS 관계자는 “접속 오류는 해킹으로 인한 것이 맞다. 현재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채널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 규모와 원인에 따라

복구 기간이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면서 “채널마다 제각기 복구 시점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과 13일에는 YTN 유튜브 공식 채널이 해킹을 당해 5시간여 동안 먹통이 됐다가 복구되기도 했다. 이에 다른 방송사들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앞서 두 건의 사례가 매우 비슷한 양상”이라며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유튜브 채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발기부전 수술적 방법으로...

팽창형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치료!



비뇨기과 전문의 최준호 원장



- ◆ 발기 버튼을 눌러 음경을 발기시켜 성관계!
- ◆ 소실 버튼을 눌러 음경을 평상시 상태로!
- ◆ 겉으로 보기에 표시가 나지않고 자연스러움!
- ◆ 성관계후에도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발기는 계속 유지됨!
- ◆ 간혹 수술부위 염증, 고장이 생길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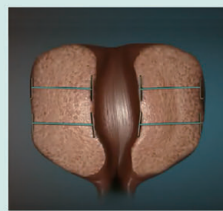
전립선비대증 치료!

유로리프트를 이용한 수술! 당일 검사! 당일 수술 지향!

이 치료는 **실**(이식형 결찰사)을 이용하여 **전립선비대증**의 양쪽을 당겨서 막혔던 요도를 벌려주는 방법입니다. 비교적 시술시간이 짧고 출혈이 적습니다.

다양한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한 기계 보유!

아주 큰 전립선비대증은 레볼릭스레이저를 이용한 수술로 가능. **과민성방광**과 전립선비대증도 동시치료가 가능합니다. 시술부작용 : 출혈, 염증



시술후

전립선비대증 : 유로리프트, 레볼릭스레이저 이용수술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 211103-중-131211호